

2013. 5. 12 김지현

오늘은 어제밤에 자서 아침이 되어 다음날이 된다는 느낌이 없었다
난 원래 잠이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잠이 안오고
생각이 많고 기분도 이상해서 잠을 못 잤다.
새벽까지 두척이다가 해가 점점 뜨고 환해져서야
조금 자고 일어났다.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가 영화를
보게 되는데 보고 나서 기분이 더 이상하고 나빴다.
보고 나서 기분나쁜 영화는 처음이라고 생각했지만
영화는 평범한 영화였다. 기분나쁜 호러로도 아니었다.
그랬던 탓은 내 기분 탓이었다고 생각한다.
안수 없는 의아한 하루였다.
그래도 평소에는 자느라고 생각할 수 없던 것을
그리고 느끼지 않던 것을 느껴볼 수 있었던
날이라고 생각한다.